




중세 말 세계에서의 기후, 질병, 그리고 사회

Great Transition

대전환

브루스 M. S. 캠벨

박흥식·노의근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지은이 **브루스 M. S. 캠벨**

브루스 M. S. 캠벨(Bruce Mortimer Stanley Campbell, 1949년생)은 영국의 중세 경제사학자로 1975년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중세 노퍽 동부의 경작체제: 14세기 인구와 농업의 변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캠벨은 “14세기의 인간-환경 상호 작용과 13세기에서 19세기까지 농업 산출과 생산성의 동향 연구에 업적이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벨파스트 퀸즈대학교에서 재직했고, 현재는 은퇴해 명예교수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전문적인 글을 발표하고 있다. 왕립역사학회 회원, 사회과학아카데미 회원에 이어 2009년 브리티시아카데미 정회원으로 선출되어 학문적 능력과 기여를 널리 공인받았다.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는데, 초기에는 주로 중세 성기와 말기 잉글랜드의 식량생산과 경작방식 등 농업사 분야에 천착했고, 차츰 중세 말의 위기, 상업화, 경제 성장, 환경 변화 등으로 연구 주제를 확장해 나갔다. 본서 *The Great Transition: Climate, Disease and Society in the Late-Medieval World*(2016)는 캠벨의 평생의 연구 성과를 압축한 결과물로서 그 학문적 독창성과 탁월성을 인정받아 2017년에 란키 상을 수상했다.

옮긴이 **박흥식**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공부한 후,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중세 독일 중북부도시의 소상인길드 연구」(1999)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를 거쳐, 2003년 8월 이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양화진문화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역사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기록관 관장을 맡고 있다. 주전공 분야는 중세 유럽의 도시사이고, 유럽의 사회경제사, 일상생활사, 교회사, 흑사병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세와 그리스도교』, 『미완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 『역사 속의 질병, 사회 속의 질병』, 『팬데믹 너머 대학의 미래를 본다』, 『문화의 유통 그 과정과 변이』 등 다수의 책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저술하였고, 그 외 다수의 번역서와 논문이 있다.

옮긴이 **노의근**

서울대학교에서 해양학과 물리학을 공부했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지구 유체의 난류현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87). 이후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연구원과 군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1993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규슈대학교 객원교수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KIAPS) 이사장을 역임했다. 수치모델(LES)을 이용하여 해양 혼합층, 대기 경계층, 구름 미세물리 등 대기와 해양의 난류 현상에 대한 연구로 8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모델의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도 연세대학교에서 기후와 문명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난류론』과 『기후와 문명』 등이 있다.

THE GREAT TRANSITION: CLIMATE, DISEASE AND SOCIETY IN THE LATE-MEDIEVAL WORLD
by Bruce M. S. Campbell was first published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6.

Copyright © Bruce M. S. Campbell 2016

All rights reserved.

This Korean edition was published by SNU Pr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in 2024 by arrangement w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rough KCC (Korea Copyright Center Inc.), Seoul.

이 책은 (주)한국저작권센터(KCC)를 통한 저작권자와의 독점계약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대전환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30일

지은이 브루스 M. S. 캠벨

옮긴이 박홍식, 노의근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681-7 93920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번역서는 2021년 서울대학교 기초학문 저술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중세 말 세계에서의 기후, 질병, 그리고 사회

Great Transition

대전환

브루스 M. S. 캠벨

박흥식, 노익근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역자의 글

*

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는 단기간에 전 지구적 감염병으로 확대되면서 세상을 멈춰 세웠다.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개인과 사회를 포괄하는 전 영역을 위기로 몰아넣었기에 지구촌 국가들의 사회 및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본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사람들은 세계화의 전방위적 확대에 잠재해 있던 위험성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고, 인공위성을 수천 개 쏘아 올릴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어도 상시적인 대비체제가 결여되었을 경우 감염력이 큰 역병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나라의 경제 지표들은 크게 뒷걸음질 쳤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 세계 각국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해 대처하며 노력한 덕분에 다행히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져 차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발병 후 3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5월 5일에서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중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현대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다. 특히 이상기후의 징후들을 일상에서 겪고 있는 21세기에 전염병이 기후변화, 환경, 국제협력, 전 지구적 경제망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새삼 인식하게 만들었다. 현재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지구촌의 장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보건학자들도 기후 변화가 감염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해 조만간 코로나19와 유사한 전염병들이 계속 발병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우려한다. 또 다른 팬데믹의 출현에 대한 전망은 세계화와 현대 사회, 좁게는 인간의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과거를 보는 시각도 바꿔 놓았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후변화와 전염병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 영향을 미쳐 왔는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 평가되는 중세 페스트의 기원과 원인, 그리고 희생자들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를 자극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팬데믹 발생 이전에 기후변화와 전염병 사이의 상호 작용에 천착해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연구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결실은 영국의 경제사학자 브루스 M. S. 캠벨(Bruce M. S. Campbell)이 201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에서 출판한 『대전환: 중세 말 세계의 기후, 질병, 그리고 사회』(*The Great Transition: Climate, Disease and Society in the Late-Medieval World*)다. 이 책은 시의성은 물론이고, 주제, 학술적 깊이, 그리고 학제 간 연구의 성과라는 점에서 주변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문제작이다. 이 점이 역자들이 선뜻 번역하기로 결정할 수 있던 이유였다. 저자는 기후변화가 팬데믹의 발병과 인간 사회 및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3세기 말에서 15세기 사이 시기를 광범위하게 추적하였다. 기후변화와 인간 사회의 관계를 다룬 책이 지금까지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동원해 치밀하게 연구한 시도는 없었다. 이 저술이 지닌 학문적 독창성

과 탁월성은 격년마다 수여하는 권위 있는 란키 상(György Ranki Biennial Prize)의 2017년(12회) 수상자로 결정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캠벨의 저술은 자연과학과 역사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융합해 이룬 성과이다. 저자는 장원 자료에 기반한 농촌 경제와 상업사 연구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긴 경제사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이 책에서는 역사가들에게 매우 생소한 고기후학, 미생물학, 전염병 생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망라하여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최신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통합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중등학교 시절 지리학 공부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환경과 생태에 대해 폭넓게 학습한 경험 및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결실이지만, 조기 은퇴를 선택하고 본인의 학문적 열정이 이 연구에 쏟아부은 저자의 집념과 성실성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탁월한 결과물로 완결 짓는 일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캠벨은 원고를 마무리할 때까지 학회 참석은 물론 기후사와 역병학에 대한 최신 자연과학적 자료 및 논문 검토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가 살펴본 자료들은 캄보디아 지역의 강수 패턴, 시베리아 낙엽송의 나이테 너비, 페루 연안 대륙붕의 퇴적 세립석질 층위, 볼리비아 빙하 코어에서 채취한 화산분출물 등 역사학자들에게 낯선 소재들로 가득하다. 그는 흑사병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해명하기 위해서 집단매장지 유해의 치수에서 추출한 aDNA 분석과 쥐, 벼룩, 세균의 생태에도 깊이 파고들었다. 덕분에 이 책에서는 페스트 연구의 최신 성과뿐 아니라, 기존 학설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평가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자료들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각기 동떨어지지 않고 개별 주제의 설명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탄을 자아낸다. 50쪽에 가까운 참고문헌에 열거한 천여 편의 책과 논문 중 상당수는 동물학, 유전학 등 역사가들이 거의 접할 기회가 없는 영역의 글들이다. 캠벨은 이것들을 역사학의 영역 안으로 끌어와 당대 사회와의 상호 관계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한 개인의 연구라고 생각하기 어려

운 방대한 작업을 능숙한 대가의 안목으로 완결지어 새로운 이정표를 놓았다. 이와 같은 성취는 한편으로 근래 기후사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에 크게 기대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내에서의 엄청난 연구 지원, 새로운 방대한 자료의 접근 및 활용 기회, 학자들 사이의 거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등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캠벨이 이 책에서 자연과 인간 사회의 상호 작용을 탁월하게 통찰한 결과는 다양한 피드백을 거치며 향후 더욱 치밀하고 완성도가 향상된 연구들의 출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제목에서 표현하였듯이 이 책은 중세 말기라고 지칭되는 1260년대에서 1470년대 사이 두 세기에 걸쳐 구세계에서 진행된 ‘대전환’을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전환이 환경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독특하게 결합하며 촉발된 과정이기에 캠벨은 책의 서두에서 중세 성기부터 진행된 환경과 인간, 자연과 사회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인다. 저자는 우선 대전환 국면이 장기적인 호황 뒤에 찾아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구세계가 중세 성기에 유례없는 번영과 팽창을 구가할 수 있던 것은 ‘이례적으로’ 온화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역병의 부담이 미미했던 ‘중세 온난기(Medieval Climate Anomaly)’ 기후의 영향이었음을 강조한다(2장). 앞선 시기와 비교할 때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빨라서 농업 생산량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인구는 두세 배로 늘어났고, 교황을 정점으로 한 라틴 기독교 세계의 발전도 절정에 이르렀다. 도시의 수와 수공업 생산이 급증했고, 상업화를 뒷받침한 제도의 발전과 법체제의 정비도 뒤따랐다. 한편 중앙아시아를 본거지로 한 몽골 제국의 출현과 분열된 유라시아 내륙의 통합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대한 변화였다. 그 결과는 아

부-루고드가 ‘13세기 세계체제’라 명명한 세계적 교역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대전환의 첫 단계에서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260-70년대였다(3장). 기후가 불안정해지면서 흉년이나 가축전염병 같은 농업에 부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당대인은 인지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자연환경의 변화도 촉발시켰다. 십자군 원정의 종결로 유럽 상인들은 레반트 시장을 상실했고, 맘루크와 일 칸국의 계속되는 전쟁 상태로 인해 교역 환경도 악화되었다. 교황은 권위를 상실하여 세속 국가들의 갈등을 중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직접 세속 국가와 분쟁을 겪는 일이 잦아졌다. 그 결과 유럽 내부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지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이 무렵 동서양을 연결해 주던 중요한 교역망들은 단히기 시작했고, 기존 특권을 상실한 제노바와 베네치아 상인들은 대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교역은 점차 더 위험해지고 거래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유럽 경제는 불황에 빠져들었다.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멈춤에 따라 농업이 인구 증가로 인한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만 했다. 빈곤층의 증가와 때마침 되풀이되던 기근은 농촌은 물론이고 성장하고 있던 도시에도 유례없이 충격을 주어 공동체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였다.

결정적인 국면은 대전환의 두 번째 단계였던 1340년대에서 1370년대 사이였다(4장). 이 기간 중에 환경적·인간적 위기들이 가시화되었고, 기후의 재편도 가속화되었다. 이상기후는 곡물의 재배 환경을 악화시켜 유럽은 물론 중국과 동아시아까지 기근이 휩쓸었고, 이는 정치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교역과 경제가 위축되던 상황에서 흑해에 도달한 페스트균이 팬데믹으로 발전하여 몇 년 사이에 소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대부분을 황폐화시켰다.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급감은 구세계 전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전염병 유행이 장기간에 걸쳐 되풀이됨으로써 라틴 기독교 세계의 인구는 이미 1380년 무렵에 역병 발생 전의 절반까지 축소되었다. 이처럼 기후, 전염병, 전쟁은 구세계에

근본적이며 불가역적인 변화 즉 사회-생태 체제(socio-ecological regime)의 급격한 전환을 초래하였다.

대전환의 마지막 단계는 1370년대부터 약 100년에 걸친 장기간의 침체기다(5장). 유럽 사회는 이 시기에 변형된 환경적·경제적 상황에서 인구가 격감하고 사회의 많은 영역이 위축되어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맘루크와 오스만 제국의 확장으로 대외적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 겨우 15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당대인들은 서서히 질병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현저히 달라진 환경에서 사회들도 인구와 경제를 차츰 회복하며 성장을 재개하였다. 한편 유럽은 법 제도, 재산권, 상품시장 등의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선박 설계와 항해술의 핵심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며, 아시아의 고가품에 대한 대체제를 개발하고 있었다. 일부 유럽인들은 위기의 타개를 모색하며 개선된 선박과 항해술을 이용해 먼바다로 항해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사회-생태 시대의 주역들로 부상하였다. 캠벨은 대전환의 세 단계가 진전됨에 있어 미리 예정된 진로는 없었다고 강조한다. 인간적·환경적 요소의 미세한 변화와 조합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가능했다고 본다.

캠벨은 자연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변화와 그 역사적 전개에 내포된 복합적 상호 관계를 사회-생태 체제라는 독특한 모델로 설명한다. 기후와 사회, 생태계와 생물, 미생물과 인간으로 이루어진 이 체제의 여섯 가지 핵심 요소는 각기 독립적으로 변화하지만, 동시에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회-생태 체제의 각 구성 요소는 자체의 역학에 의해 추동되지만, 환경적 요인과 인간적 요인 사이에 현저한 동시성은 상호 간의 의미 있는 영향 및 협력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체제는 인간적 혹은 환경적 변화에 의해 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변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어떠한 영역도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체로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장기 14세기’에 구세계가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해 오던 사회-생태 체제에서 벗어나 일련의 심오하고 급격한 변화들이 발생했다. 태양복사량의 증감과 기후변화가 이러한 대전환을 이끌었으며, 기근, 경제적 불안정, 전쟁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던 상황에서 우역과 흑사병 등 더 큰 잠재력을 지닌 재난들까지 중첩되어 임계점 **tipping point**을 넘어서게 되었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흑사병이었으며, 기후가 유라시아의 모든 부분의 성장을 가로막았고, 생태계, 재배 환경, 항해 조건, 수송 능력, 생존 역량 등을 변화시켰다. 인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질병을 확산시키기도 했고, 기후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화석 연료의 활용도 여러 해법 중 하나였으나, 이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통하여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캠벨은 환경적·인간적 요인들의 결합으로 ‘초대형 복합위기 **perfect storm**’와 ‘대전환’이라고 부르는 사회-생태 체제의 재편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결국 중세 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후, 질병, 사회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층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가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만도 아니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자원에 비해 인구가 과다하여 저임금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농후했던 유럽 사회에 빈곤의 짐을 경감해 주어 인구와 가용 자원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개선하였으며, 경작지와 목축지 사이에 생태적 균형을 확립하고, 토지와 인구의 구조 개혁을 용이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영양 수준과 가구들 사이의 소득 분배도 한결 나아졌다. 이것이 대전환 이후 유럽이 근대적 성장을 재개할 수 있던 중요한 이유였다. 초대형 복합위기는 엄청난 충격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그 충격이 비대칭적이었다는 점도 강조된다. 캠벨은 사회-생태 체제의 전환이 아시아보다는 기후변화에 더 잘 적응한 유럽에 유리하게 작용해 유럽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모하였다고 본다. 즉 유라시아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 다른 운명을 맞았고, 대전환

이 대분기(大分岐, Great Divergence)를 초래해 유럽 세력이 아시아 국가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 내에서는 이 과정에서 지중해 경제의 역동성이 기울어 북이탈리아의 번영이 차츰 둔화되었고, 브라만트, 홀란드 등 저지대 지역과 잉글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해, 이후 가장 부유한 곳이 되었다.

환경사/기후사와 전통적인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거나 기여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책은 하나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제시될 수 있을 듯하다. 저자는 기후변화가 농업과 환경 영역에서 각종 재난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단지 대략적인 자료나 막연한 영향 관계를 들먹이며 주장하지 않는다. 그와 달리 자연과학적 데이터와 역사적 사료를 풍부하게 동원하고 접붙여 기후와 각종 재난 사이를 인과 관계로 설명해 낸다. 캠벨은 이처럼 기근, 전쟁, 교역의 연결 및 단절, 인구변화 등이 기후변화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절한 근거를 통해 논증할 뿐 아니라, 개별 재난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환경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농촌의 소작농들과 도시의 수공업자들이 실제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특히 잉글랜드의 사료들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 14세기 전반 대기근이나 흑사병이 닥치기 직전 농촌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던 변화들, 페스트 대유행 이후 농촌과 도시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바꿔 놓은 사회현실을 촘촘하게 규명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파급력이 대전환으로까지 귀결되는 과정을 다층적이고 치밀하게 복원한다. 캠벨이 이처럼 경제사로 대표되는 일반 역사와 환경사/기후사를 단지 병렬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다차원적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40년에 걸쳐 몰두했던 사회경제사 연구의 축적에 기후 및 생태에 대한 새로운 공부 가 덧붙여지며 스스로 학제 간 융합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했기 때문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의 시선이 시종일관 대전환 시대를 살아

가던 당대인의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새로운 시각이나 고찰을 담고 있는 만큼 논란이 될 주장들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다. 캄벨에 따르면 기후는 1000년 이후 서유럽 번영의 기본 조건이었고, 13세기 후반 위기 국면으로의 진입과 페스트가 팬데믹으로 확산되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다. 기후와 질병으로 대표되는 자연이 사실상 역사 변혁의 주역이었다. 한편 대전환 전개 과정의 복합성을 언급하며 인간적인 요인들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함으로써 역사를 환경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취한다. 또 흑사병 팬데믹이 유럽에 전례없는 피해를 끼쳤지만, 사회로부터 빈곤의 짐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와 유럽과 비유럽 세계 사이의 우위를 역전시킨 대분기의 효시가 되었다고 결론짓는다. 그렇지만 흑사병과 대전환이 중국이나 이슬람 세계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분기의 시점이나 성격을 논하는 것이 설부르게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가 대전환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분석하고 추적하면서 자연에 대한 역사가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이 책의 번역은 우연한 만남의 결과물이다. 2020년 5월, 노익근 교수께서 불쑥 연락을 해 오셔서 만나게 되었다. 그 만남에서 내가 진행하고 있던 흑사병 연구와 전근대 시대 유럽의 환경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셔서 환담을 나누는 적이 있다. 알고 보니 노 교수님은 대기과학에 정통한 자연과학자로서 연세대에서 오랫동안 <기후와 문명>이라는 교양 강좌를 인기리

에 강의하던 분이셨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노 교수님이 연락을 주셔서 한 차례 더 만났을 때에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우선 캠벨의 책을 함께 번역해 보자고 제안하셨다. 중세 유럽의 경제사학자로 명망을 얻고 있는 캠벨은 내가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연구년을 보낼 때 존 해처 John Hatcher 교수가 주관한 콜로키엄에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최근에 저술한 책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다. 그 책이 관심이 많았던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학의 영역을 확장하는 매우 새로운 시도였기에 흥미가 생겼다. 하지만 당시 내게는 여러 가지 밀린 일이 있어 선뜻 수락할 수 없었다. 노 교수께서 열의를 갖고 요청하셨기에 일단 제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일을 시작하자는 미온적인 대답을 드렸다. 연구실에 돌아와서 책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책의 번역이 역사학뿐 아니라, 통섭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마음을 정하고 나서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책을 출판할 곳이 있을까 하고 찾던 중 서울대출판부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심의를 신청해 내부 승인을 받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저작권을 확인해 보니 이미 한 국내 출판사와 번역 계약을 논의 중이었던 것이다. 3개월 정도 기다려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부담을 덜어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쉬운 마음도 컸다. 시간이 흘러 해당 출판사가 번역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기에 결국 저작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서울대의 번역지원사업에도 신청하였는데, 채택이 되어 2021년 9월부터 1년간 지원까지 받았다.

이 책은 의욕이 많은 한 학자의 학제적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어느 분야의 학자라도 홀로 번역하기에는 전문 지식의 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대기과학을 전공한 노의근 교수와 유럽 중세의 흑사병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온 필자가 함께 논의하며 번역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되었다. 당시 노의근 교수께서 시간적으로 여력이

있었기에 먼저 장별로 초벌을 번역해 내게 건네주면, 나는 본문과 대조하여 다시 문장들을 수정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진행했다. 그 후 노 교수께서 재차 검토한 후 재수정 의견을 주시면 필자가 최종적으로 취합해 정리했다. 중간에 몇 차례 만나 적절한 번역 용어와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고, 용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역자주를 채워 넣었다. 분량을 나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함께 여러 번 검토하며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공력을 필요로 하는지 새삼 경험하게 되었다. 노 교수님은 꽤 빠른 속도로 번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과물이 늦어진 것은 거의 전적으로 나의 사정 때문이다. 본래 노 교수님이 정년을 맞던 2022년 8월에 맞춰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그로부터도 많이 늦어졌다. 인내를 갖고 긴 시간을 기다려 주신 노 교수님께 감사할 뿐이다.

책이 출판되기까지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지만, 특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인 씨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문장 하나하나를 원문과 세심하게 대조하며 오역을 바로잡았고 표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물론 아직도 남아 있는 오류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역자들의 책임이다.

끝으로 21세기 초 지구촌은 상황은 다르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기후위기, 크고 작은 팬데믹의 발병, 지구촌 과밀화,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 자원의 부족, 빈곤과 양극화, 국제 관계 및 국내 문제에서 갈등을 조정할 권위의 결여 등. 이 책의 독자들이 지나간 역사로부터 작은 부분이라도 지혜를 얻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2024년 7월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어 가는 관악에서
박홍식

역자의 글 v

머리말 1

1장 중세 말 세계에서 자연과 사회의 상호 작용 15

- 1 대전환: 연대기적 개요 17
- 2 대전환과 대분기 34
- 3 자연과 사회의 중대한 전환 36
- 4 대전환의 추적: 규모, 초점 그리고 증거 40

2장 변영 49

양호한 환경과 라틴 기독교 세계의 성장

- 1 라틴 기독교 세계의 도약과 지속적 성장 54
- 2 중세 온난기 56
- 3 구세계 인구의 증가 78
- 4 라틴 기독교 세계의 상업 팽창을 뒷받침한 제도적 토대 85
- 5 라틴 기독교 세계의 상업혁명 108
- 6 중세 성기의 양호한 환경과 라틴 기독교 세계의 변영 161

3장 위태로운 균형 177

기후 불안정이 고조되고 병원균이 재출현하는 시기에 커져 가는 경제적 취약성

- 1 변영에서 침체로 179
- 2 고조되는 기후 불안정 248
- 3 재출현한 병원균 259
- 4 위태로운 균형 307

부록 3.1 1290년 잉글랜드 가구의 토지 수입 317

4장 임계점 341

전쟁, 기후변화, 페스트가 무너뜨린 균형

- 1 확대되는 전쟁과 심화되는 상업 침체 342
- 2 변화의 정점에 있던 구세계의 기후 353
- 3 유럽의 흑사병 창궐 365
- 4 흑사병의 지속되는 역학적 유산 391
- 5 흑사병: 수수께끼는 풀렸는가? 397
- 6 셋이 하나로: 초대형 복합위기 408

부록 4.1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의 발병과 날씨 410

5장 침체 423

환경의 억제로 수축하는 중세 말 라틴 기독교 세계의 인구와 경제

- 1 임계점에서 전환점으로 423
- 2 소비하기의 도래 427
- 3 세균의 전성시대? 441
- 4 경제와 상업의 수축 448
- 5 역경 속의 번영? 467
- 6 대전환의 종결: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방향 전환 481

6장 맺는말 499

이론, 우발성, 결합 그리고 대전환

참고문헌 507

찾아보기 559

머리말

돌이켜 보면 이 책은 열여섯 살 때 리크맨스워드중등학교에서 당시 교감 겸 지리학 주임이었던 스토티어 선생 **Mr. Stow**의 추천으로 지리학, 경제학, 순수 수학, 통계학 상급과정 등을 공부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학문 여정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가볍게 내린 이 결정에서 비롯된 이 책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경제적 진보 또는 곤궁, 사회-생태적 변화의 매개로서 기후와 전염병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들과 발전들에 대한 정량화와 그래프를 통한 구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60년대에 지리학 **地誌學**은 지리학 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이었다. 따라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인문지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항상 물리적 환경에 대해 배웠다. 이는 자명하게도 기온, 강수량, 토양, 지질, 식생, 생태계 등이 사람들이 생활할 장소와 그에 필요한 자원, 생존 방식과 운송 수단 및 노선, 그리고 직면하게 될 물리적·생물적 위험들의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환경사도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자연을 역사 변화의 주역들 중 하나로 포함할 경우 환경결정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위험이 크다. 필자가 리버풀대학의 학부생으로 엘스워스 헌팅턴 **Elsworth Huntington**의 환경결정론을 배울 때 이는 기피해야 할 관

점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대신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제도와 기술을 창조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조건이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배웠다. 자연과 사회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중요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에, 자연의 변화는 인간 사회와 함께 진전되어 가니 그와 더불어 연구할 가치도 있다고 간주되었다. 당시 비교적 신생 교과목이었던 생태학은 한 지역으로부터 전 지구에 이르기까지 중첩된 규모의 위계 내에서 환경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분석, 설명 및 이해하기 위한 아마도 가장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적 체계로서 소개되었다. 신고전주의, 제도 경제학 또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변수와 상호 관계를 수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 총체적 접근 방식은 그 이후로 줄곧 나를 사로잡았다. 한편, 교육의 형성 단계였던 이 기간 동안 자연지리학의 하위 과목을 폭넓게 읽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없었다면, 나는 이 책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페스트의 생물학과 고기후학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의 문헌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종종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졌던 이 경험이 수 년 뒤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이 책을 통해 나의 학문적 뿌리로 돌아왔다.

1970년대 초 케임브리지대학의 대학원생으로서 앨런 베이커(Alan Baker)의 사려 깊은 지도를 받으며 중세 말 노퍽의 세 영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수행하던 중에 1315-22년 유럽 대기근과 1348-49년 흑사병의 엄청난 경제적·인구학적 영향을 처음 접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결정론적이었던 맬서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중세 경제사 해석이 당시 유행했으나, 내가 이해하는 한 경쟁적인 두 입장 중 어떤 것도 이들 재난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내지 못했다. 게다가 이 재난들을 섭리에 따른 외생적인 충격에 의한 것으로 무시해 버리면서, 어떤 이유에서 500년에 한 번 발생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한 세대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중첩

되어 발생했는지에 대해 좀처럼 묻지 않는 태도는 그동안 받았던 지적 훈련에 비추어 볼 때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생태학 관련 연구가 일천한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들을 환경적 관점에서 깊게 탐구해 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에마누엘 르 루아 라뒤리 *Emmanuel Le Roy Ladurie*가 선구적인 저작 『축제의 시대와 기근의 시대 *Times of Feast and Times of Famine*』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과거 기후변화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기에 역사학자들은 손쉽게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있었다.¹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최근 ‘전 지구적 온난화’에 대한 우려로 인한 연구지원금의 증가, 휴대용 컴퓨터의 등장 및 인터넷의 도래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나이트, 빙하 코어, 동굴 이차생성물, 호상점토(호수 연층), 해양 퇴적물 등으로부터 방대하고 풍부한 고기후 자료를 축적해 탐구하며 깊이 다가감으로써 비로소 진전을 보게 되었다. 특히 미국해양기상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국립기후자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는 귀중한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역사가들이 좀 더 주목할 가치가 있다.² 내가 박사학위논문을 쓰던 시기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대학원생 시절 진정한 보고라 할 수 있는 13세기 중반부터 15세기 말에 이르는 장원 장부들을 발견해 곡물수확량 자료들을 수집하고 집계했다. 이 작업은 노퍽에서 시작되었고, 1983-84년에는 경제사회연구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의 개인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1988-94년에는 리버홀재단 *Leverhulme Trust*과 ESRC의 재정 지원으로 데릭 킨, 짐 갤러웨이, 마가렛 머피와 공동으로 두 카운티에 대한 도시 급식 프로젝트를 *Feeding the City Projects*를 수행했으며, 뒤이어 런던 부근의 10개 카운티까지 과제를 확대했다. 이 과제는 이후 ‘1270-1430년 곡물수확량, 환경 조건 및 역사적 변환’이란 ESRC 자체 지원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했다. 영국학술원과 더불어 서식스고고학협회의 마거리 기금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앤 드레웨리, 데이비드 하디, 마릴린 리

빙스턴, 크리스토퍼 휘틱, 일레인 예이츠 등이 더할 수 없이 귀중한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 노퍽과 10개 카운티의 도시 급식 프로젝트에서 얻은 기존 수확량 자료에 윈체스터 주교구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영지들이 추가되었고, 배틀 사원, 캔터베리 주교좌성당 수도원, 글래스턴베리Glastonbury 수도원에 속하는 새로운 영지들에 대해 안 타이토와 데이빗 파머가 산출한 광범위한 수확량 통계도 덧붙여졌다. 이것들로부터 확보한 영지들 및 국가 단위의 집계 결과는 모두 온라인 사이트(www.cropyields.ac.u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책에서도 앞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이 곡물수확량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퀸즈대학의 연륜^{年輪}학자 마이크 베일리Mike G. L. Baillie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나이테와 곡물 수확량이 각각 과거의 재배 환경에 대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조적인 척도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자연환경연구위원회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에 신청한 2건의 공동 과제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결국 ESRC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225년 동안의 영국 농작물 수확량 자료를 산출하는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연구 결과는 처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로웠다. 기후 조건이 농업생산량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극심한 흉년을 겪었던 1256-57년, 1292-95년, 1315-16년, 1436-37년과 수확이 좋았던 1325-27년, 1376-78년, 1386-88년을 보다 명료하게 환경적 요인과 관련지어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곡물수확량과 참나무 나이테 자료가 세계 각국의 연륜연대학 자료들과 더불어 흑사병이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의 인구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던 1340년대 후반의 전반적인 쇠퇴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기상이변, 생태적 스트레스, 그리고 페스트의 창궐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마찬가지로 기후 불안정이 고조되던 시기에 유럽 대기근과 흑사병의 공통된 기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명백해졌다. 이는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논쟁도 많은 이 시기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마이크 베일리는 이 복합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얹지만 도발적인 저서 『흑사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New Light on the Black Death}』에서 서술했다. 이 책에 제시된 수많은 아이디어와 증거는 나의 연구에 몇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공했다. 만약 베일리와 나의 생산적인 대화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가 제공한 연륜연대학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서술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곡물수확량 프로젝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티브 브로드베리, 마이크 오버턴, 알렉스 클레인, 바스 판 레이우엔과 함께 1270-1700년 잉글랜드에 대해, 그리고 1700-1870년 영국 전체에 대해 국민소득을 재산출하는 야심찬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리버홈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2014년 3월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에 『영국의 경제 성장, 1270-1870년』이라는 원고를 제출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입었는지는 책에 있는 수많은 인용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 덕분에 이 글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자료보다도 인구의 정량적인 추정치, 농업·산업·서비스 부문의 산출,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내총생산 자료를 견실하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7차 연구 프로그램(계약 번호 SSH7-CT-2008-225342)에서 후원한 ‘역사적 발전 패턴HI-POD’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던 스티브 브로드베리와 케빈 오루크가 주최한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파올로 말라니마, 레안드로 프라도스 데 라 에스코수라, 얀 루이텐 판 잔덴 등과 그 외 과거 국민소득 담당 회계사들의 작업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다. 이들 모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양해해 주었고, 그들이 산출한 추정치는 예외적으로 기록이 잘 보존된 잉글랜드의 중세 후기 경제 발전을 더욱 광범위한 맥락에서 비교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존 먼로의 플랑드르 섬유 산업에 관한 풍부하고 상세한 저작들도 플랑드르를 전체 논지 내에 수용해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쉽게도 그는 이 책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와 흥미로운 대화를 많이 나는 덕분에

14세기 초의 전쟁, 늘어난 거래 비용, 상업적 쇠퇴 사이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고인이 된 래리 엡스타인의 공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통화론자였던 존은 이 책의 5장에서 흑사병 이후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상업적 위축의 원인으로 금은의 부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나는 16년간 중세 및 근대 초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제사를 가르친 후, 2004년 벨파스트의 퀸즈대학에 신설된 고고학-고생태학과 지리학 융합 학과에 합류했다. 그곳에서 ‘재난, 인간 그리고 역사: 지난 1000년간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졸업반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다. 이 수업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참조하여 지난 1000년 동안 환경적인 위기와 재난이 인구,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한편에 기근, 가축전염병, 페스트 및 그 밖의 여러 재난 등 극단적인 사건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 성장 조건의 변화와 사망률 같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추이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학생들은 전자에 흥미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양편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학생들에게 왜 어떤 사회는 자연 재해에 취약하고, 다른 사회는 그렇지 않은지 숙고하도록 유도했다. 이 수업의 내용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에 제출한 저술 제안서(「위기의 분석: 영국과 아일랜드 1290년에서 1377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청해 승인받은, Wiko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베를린고등연구원 [Wissenschaftskolleg zu Berlin](#) 연구지원서에 서술해 두었다. 물론 동 시기에 이와 같은 제안들을 했다는 사실은 영국 국민소득 프로젝트의 기한이 종료한다면, 두 원고를(하나는 공저, 다른 하나는 단독 저술) 거의 같은 시기에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에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 권 가운데 후자의 출판은 지연되었지만, 실제로는 두 작업이 동 시기에 이루어졌기에 각 권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대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저술 작업은 2010년 10월 베를린고등연구원이라는 매우 이상적인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를 추

천한 그레고리 클라크, 기꺼이 받아준 원장과 이사회,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고등연구원에 감사한다. 학제적이며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와 최고 수준의 도서관 지원 등에 힘입어 이곳에서 비로소 NOAA 웹사이트를 알았고, 1270년경에서 1420년경 사이 발생했던 기후 재편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었음을 인지했다. 그 결과 영국으로 한정된 저술 제안서를 다시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2010년 10월, 저술 작업에 더욱 탄력을 받는 계기가 있었는데, 헨쉬와 그의 동료들이 작업한 획기적인 논문에서 흑사병을 발생시킨 병원균이 페스트균 *Yersinia pestis* 이었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가 급속히 진전 중인 생물학 연구에 곧바로 착수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당시 마르세유, 마인츠, 그리고 오슬로의 페스트 연구팀들은 상호 경쟁하며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것은 경제사학자인 내게 미지의 학문 영역에 새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고등연구원에서 생물학자 재니스 안토노빅스와 마이크 부츠로부터 도움과 격려를 받기도 했다. 근래에는 미셸 지글러, 모니카 그린, 앤 카마이클 등 생물학에 관심이 많은 중세사가와 질병사학자들의 논평과 조언으로부터 작업의 진전에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앤 카마이클이 흑사병을 서술한 부분의 초고에 대해 제시한 풍부한 지식과 건설적인 논평은 내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내게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013년 9월 레딩대학의 리차드 호일이 주관한 페스트 관련 워크숍에서 저명한 고생명체 유전정보 *ancient DNA, aDNA* 학자 바바라 브라만티를 만나 의견을 듣는 즐거움을 누렸다. 그녀는 당시 마인츠 페스트 연구팀을 이끌었으며, 현재는 세 가지 페스트 모두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있는 오슬로 연구팀으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³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페스트 역사가 올레 베네딕토우도 그 회의에 참석해 친절하게도 내 논문에 몇몇 의견을 주었다. 물론 그의 모든 권고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조언은

기존 증거들을 실제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도 페스트 위원회의 보고서와 제3차 팬데믹으로 인해 출현한 방대한 의학 문헌을 상세히 검토한 후 도달한 그의 견해는 흑사병의 지리적 기원, 활성화, 숙주와 매개생물, 전염 및 확산 기제, 치사율 등 흑사병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에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깨우쳐 주었다. 즉 신중한 역사가라면 이 주제에 대해 교조적 주장을 내세울 수 없다.

새로운 자료와 논문이 시시각각으로 늘어나는 분야에서 관련 주제를 분석하고 종합한 최신 저작들을 추적하고 수집하여 자료들을 통찰하고픈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학회에 참석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내가 수집해 온 자료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내 입장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나의 사고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 학회, 워크숍, 회의들은 다음과 같다. 펠론 재단 소여Sawyer 세미나의 일환으로 2010년 5월 케임브리지에서 개최한 ‘위기, 어떤 위기? 비교의 관점에서 본 봉괴와 암흑시대’, 2011년 9월 파리의 독일 역사연구소에서 개최한 ‘역사 기후학: 과거와 미래’, 2013년 뉴올리언스 미국 역사학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빅 히스토리’ 토론회(이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와 피츠버그에서의 후속 강연 및 세미나), 2014년 12월 베른대학의 역사연구소에서 개최한 ‘지난 1000년 중 가장 추웠던 10년? 스피러 극소기, 1430년대 기후 그리고 그 경제·사회·문화적 영향’, 그리고 2015년 2월 빌레펠트대학 학제 간 연구센터에서 개최한 ‘소빙하기 동안의 기근(1300-1800년): 전근대 사회들에서의 사회와 자연의 뒤얽힘’. 나는 이 여러 학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제공해 준 존 해처, 프란츠 마우엘스 하젠, 그레고리 케넷, 존 부르크, 패트릭 매닝, 찬탈 카메니시, 도미니크 콜렛 등과 학회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준 다른 참가자들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괴팅엔대학, 그라이프스발트대학, 파리 7대학, 옥스퍼드대학, 런던 역사연구소, 마드리드 라몬 아레세스 재단 등의 강연에 초청해 준 베르트 헤어만, 마이클 노스, 매튜 아르누, 밥 알렌, 존 왓츠, 폴 슬랙, 네글리 하트, 레

안드로 프라도스 데 라 에스코수라 등에게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표한다.

2009년 4월, 당시 내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프라도의 다티니연구소에서는 41번째 연구 주간 주제를 ‘13-18세기 산업화 이전 유럽에서의 경제적·생물학적 상호 작용’으로 정했다. 빔 블록만스는 이 선구적인 모임을 지혜롭게 주재했으나, 한편 이 기획은 일부 역사가들이 기존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도 잘 보여 주었다. 내게는 베른트 헤르만과 리처드 호프만으로부터 역사에 대한 환경적 접근을 옹호하는 명연설을 듣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호프만이 저술한 탁월한 입문서 『중세 유럽의 환경사 *An Environmental History of Medieval Europe*』는 최근에야 출판되어 이 책을 수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었다. 그보다 조금 일찍 출판된 존 브룩 *John Brooke*의 『기후변화와 전 지구사의 과정: 험난한 여정 *Climate Change and the Course of Global History: A Rough Journey*』과 제프리 파커 *Geoffrey Parker*의 『전 지구적 위기: 17세기의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파국 *Global Crisis: War, Climate Change and Catastrophe in the Seventeenth Century*』은 책상머리에서 이보다 앞선 시기의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해 나만의 독특한 해석을 완성하도록 나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압박했다. 한편, 내 책과 마찬가지로 두 책 모두 오랜 숙성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환경사를 연구하고 저술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 준다.

2012/13년 케임브리지대학 엘렌 맥아더 강좌에서의 초청(2013년 2월 강연, www.econsoc.hist.cam.ac.uk/podcasts.html)은 그동안 내가 힘겹게 정리해 왔으나 그때까지도 나를 압도한 역사적·고기후학적·생물학적 증거들을 종합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네 차례에 걸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술에서 환경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 앞선 엘렌 맥아더 강좌들의 학문적 위상을 감안할 때, 강연을 수행하는 일 자체가 벅찬 작업이었다. 나는 밀 레인 강당에서 크리스 브릭스와 레이 쇼-테일러로부터 가치 있는 훌륭한 조언을 들었으며, 트리니티홀에

서 묵으면서 마틴과 클레어 던튼 부부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데이빗 아블라피아, 앨런 베이커, 주디스 베넷, 존 해처, 리처드 스미스 등으로부터 환대와 더불어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때 만든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를 저술 형식으로 전환하는 데 2년 반 중에 대부분이 소요되었다. 물론 이 기간에는 ‘영국의 경제 성장’ 부분을 완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을 정독하기 전에 팟캐스트를 통해 미리 강연을 접한 독자들은 책의 내용이 강연에 비해 대폭 확대, 갱신, 수정되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그 팟캐스트가 이 책에 대한 효과적인 입문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학자는 앞서 그 길을 걸었던 다른 학자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 나는 수 세대에 걸쳐서 역사학자들이 문서고에서 어렵게 체계적 정보를 추출해 내는 인내를 경외하고, 과학자들이 해저에 퇴적된 조류藻類나 유골의 치아처럼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다루기 힘든 자료들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 내는 독창성과 끈기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적으로 혹은 팀을 이루어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에게 진 빚은 수많은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많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논문을 오픈액세스로 개방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한다. 역사서 중에는 전통적인 역사적 경계와 연대기를 초월한 재닛 아부-루고드Janet Abu-Lughod의 『유럽 패권 이전Before European Hegemony』에서 특별한 영감을 받았다. 프랭크 러들라우는 본문 대부분을 읽고 논평해 주었으며, 킬로토아와 쿠와에 화산 폭발의 연대 결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 주었다.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는 마틴 앨런, 로레인 배리, 켄 바틀리, 스티브 브로드베리, 존 브룩, 얀 에스퍼, 바스 판 레이우엔, 스콧 레비, 마릴린 리빙스턴, 팀 뉴필드, 코맥 오 그라다, 리처드 오렘, 테리 핀커드, 래리 푸스, 레안드로 프라도스 데 라 에스코수라, 데이빗 레어, 스티브 릭비, 벤 사드, 필립 슬라빈, 야콥 바이스도르프, 텅 쉬 등이 있다. 나와 40년 이상 함께 일해 온 길 알렉산더는 지도 제작의 전문성을 살려 도표 1.2, 2.1, 2.9,

3.15, 3.19, 3.22, 3.25, 3.25, 3.27, 4.9, 4.10을 그렸고, 불평 없이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두 CMYK TIF 형식으로 변환했다.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의 마이클 왓슨은 원고 마감 기한을 상기하는 이메일을 적시에 보낸 후에도 원고가 완성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었다. 리처드 호프만은 원고 초안을 통독한 후 책의 초점을 부각하고 표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건설적으로 조언한 잘 선정된 임명의 심사위원이었다. 출판본은 켄 목섬이 빈틈없이 교열을 보아 준 덕분에 한결 개선되었다.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는 함께 작업하기에 이상적이었으며, 편집부의 일 처리 능력은 더할 나위 없이 탁월했다.

내가 2010년 9월 당시 방치되어 있던 도네갈의 멀로이에 위치한 낡은 관리인 가옥과 오랫동안 절벽 꼭대기에서 비바람 속에 버려진 정원의 개조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이 책의 출판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2012년 2월, 나는 38년 이상 근무했던 벨파스트 퀸즈대학에서 조기 은퇴함으로써 다행히도 정원 가꾸기와 글쓰기를 병행할 시간을 얻었다. 그 후 매일 두 번 조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멀로이 만이 내려다보이는 1층 서재에서 책의 최종적인 형태를 완성하고, 수없이 퇴고를 되풀이하는 집필의 마지막 단계를 마칠 수 있었다. 원고 마감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마틴 맥그로디, 손 보이즈, 윌리 콜드웰이 정원을 가꾸고 유지하는 부담을 떠안았고, 그 덕분에 나는 자유를 얻어 실내에 머무르며 컴퓨터 작업에 몰입했다. 푸르른 도네갈의 하늘, 신선한 공기, 그리고 눈부신 바다를 볼 때마다 하는 일을 서로 교환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곁에서 헌신적으로 격려해 준 다이애나 덕분에 키보드 앞에서 보낸 긴 시간이 덜 외로울 수 있었다. 애견 샴슨, 그리고 최근에는 플레이어까지 가세하여 조르는 바람에 나도 종종 휴식을 취하고, 그들과 함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게 되었다. 이런 일이 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장을 초래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멀로이에서 대서양 조수의 강력한 변동, 해양의 온난함과 북극의 매

서운 추위가 교체되는 겨울, 한동안 계속되는 비, 사나운 돌풍과 허리케인 같은 강풍이 교대로 몰아치는 바람, 끊임없이 받아치는 잡초들과 급속히 퍼져 나가는 호장근(虎杖根), 짧은 겨울 낮에서 짧은 여름밤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진전 등은 자연의 독자적이며 때로 가차없는 힘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벨파스트로 돌아와 보니, 깃발, 행진 그리고 시위들이 여러 의제에 대한 인간의 결연한 추구를 입증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용납할 수 없던 일부 사건들은 파커의 저술대로 17세기 ‘전 지구적 위기(Global crisis)’가 진행되던 시기에 이 유라시아의 외딴 북서쪽 변방에서 발생했다. 이곳 아일랜드 북부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현저하게 자연과 문화가 충돌하고 또 공존해 왔다. 다른 곳에서 암묵적인 것이 여기에서는 명백하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기를 희망해 본다.

2015년 6월 7일

멜로이에서

주

- 1 Le Roy Ladurie(1971).
- 2 www.ncdc.noaa.gov/data-access/paleoclimatology-data
- 3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프로젝트 'MedPlag: 중세 페스트: 생태학, 전파 양상 및 감염 경로', 오슬로대학교 생태 및 진화 종합연구센터. 과학 컨퍼런스, '현대 분자 생명과학에 비추어 본 과거의 페스트 팬데믹(유스티니아누스, 흑사병, 제3차 팬데믹)', 2014년 11월 19-20일, 오슬로: <http://english.dnva.no/kalender/vis.html?tid=63069>.

1장 중세 말 세계에서 자연과 사회의 상호 작용

13세기 말부터 15세기 말 사이에 전개된 대전환Great Transition은 유럽의 팽창, 문화적 번영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상업적 통합이라는 지속되던 국면을 종식시켰으며, 그로부터 다음 단계가 도약할 수 있는 기저선을 명확히 했다. 이 대전환의 시작과 그 전개 과정은 환경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독특하게 결합하면서 촉발되었다. 환경적 요소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가축 및 인류에 대한 치명적인 역병의 재출현 등이 있었고, 인간적 요소로는 전쟁의 증가, 상업의 후퇴, 경제의 위축, 금은의 부족, 구세계 인구의 붕괴 등이 있었다. 대전환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생태적·지리적 차원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고기후의 과학적 규명, 페스트균 *Yersinia pestis* 계놈의 생물학적 해독, 흑사병 매장지 유골의 aDNA 분석, 학문 연구의 중요한 분야로서 전 지구사의 출현, 그리고 14,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국민소득의 분석 등 최근 관련 분야에서의 진전 덕분에 이제야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70-1470년대에 일어난 역사적 궤적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통찰력을 이용하고 물리적·생물적 과정과 발전의 역할을 역사 서술에 완전히 통합하려는 최초의 시도다.¹ 이를 위해서 지리적으로는 라틴 기독교 세계와 유라시아 전체를 적절히 포괄하고, 기후의 경우에는 북반구 또

는 전 지구로 조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환은 서유럽과 동아시아 모두에서 양호한 기후 조건, 주요 역병들로부터의 상대적 자유, 기술적 진보와 일련의 제도적 혁신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인구와 경제적 생산의 증가를 뒷받침하던 장기적 국면에 뒤이어 나타났다. 서양에서 라틴 기독교 세계의 부흥과 동양에서 중국의 송나라, 동남아시아의 참파, 대월, 앙코르, 파간 왕국, 남부 인도의 출라 왕국 등의 융성은 동 시기에 진행되었다.² 이들 모든 나라에서는 국내 및 해외 교역이 번성했으며, 그로 인해 시장이 특화되어 발전하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혜택을 누렸다. 이 시기에 이룩한 위대한 역사적 성과 중 하나는, 재닛 아부-루고드가 전거들을 통해 입증했듯이, 이들 독립적인 권역의 교역망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궁극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상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합된 세계교역체제로 합쳐졌다는 점이다.³ 이 시기에 유럽의 엘리트들은 그들이 갈망하던 동양의 향신료, 비단, 도자기 등을 대부분 당시 유럽에서 호황을 누리던 은광에서 생산된 은으로 지불하고 획득했다. 이와 같은 발전이 제2장의 주제다(2장 변영: 양호한 환경과 라틴 기독교 세계의 성장). 이는 이 시기의 변영을 뒷받침했던 사회활동적·환경적 기반들을 갈아치우고 파괴해 버린 변화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 변영기의 팽창과 성공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었을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이후 뒤따랐던 침체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⁴

변화가 임박했음을 보여 주는 첫 번째 징후는 1260년대와 1270년대에 명백해졌다. 그때부터 1340년대까지가 대전환의 첫 번째 단계다(3장 위태로운 균형: 기후 불안정이 고조되고 병원균이 재출현하는 시기에 커져 가는 경제적 취약성). 이 시기에 기후적·생물적·군사적·상업적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그로부터 마침내 주요한 사회-생태 체제(socio-ecological regime)의 변동이 나타났다. 결정적인 전환은 대전환의 두 번째이자 가장 극적인 단계였던 1340년대와 1370년대 사이에 일어났다(4장 임계점: 전쟁, 기후변화, 페스트가 무너뜨린

균형). 이 짧은 결정적 시기에 환경과 인간의 상황 모두에서 심대하며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발생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이어지는 한 세기 동안에(5장 침체: 환경의 역제로 수축하는 중세 말 라틴 기독교 세계의 인구와 경제) 사회-생태적 과정은 결국 현저하게 달라진 환경 및 상업 상황과 확대되고 재정립된 세계 내에서 경제와 인구의 회복 및 재성장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던 15세기 4/4분기까지 계속되었다.⁵

대전환의 성격을 나타내는 자연과 사회 사이의 상호 작용의 특징(1장 3절)과 이를 주어진 증거에 입각하여 어떻게 분석하고 기술할지 실질적인 방안(1장 4절)을 고찰하기 전에, 대전환 세 단계 각각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해 두는 것이 유용하리라 본다. 상황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 무엇이 일어날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든 인간적·환경적 요인들의 미세한 결합으로 인해 여러 상이한 결과가 가능했다. 그러므로 우발적 사태는 물론 자연적·인간적 과정의 우연적 결합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전환에서는 고유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맺음말(이론, 우발성, 결합 그리고 대전환)에서는 그것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본래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1. 대전환: 연대기적 개요

1) 1260/70년대에서 1330년대 사이: 대전환의 시작

1290년대 볼프 태양극소기(Wolf Solar Minimum)가 시작될 때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태양복사량(solar irradiance)이 북반구와 전 지구에서 평균 이상의 기온을 유지시켰으며(그림 1.1A), 그에 따라 양쪽 반구에 걸쳐 안정된 대기의 순환이 정착했다.⁶ 이 시기가 중세 온난기(Medieval Climate Anomaly, MCA)의 마지막 연장 국면이었다. 1250년경에 가장 뚜렷하게 발달한 그 특징은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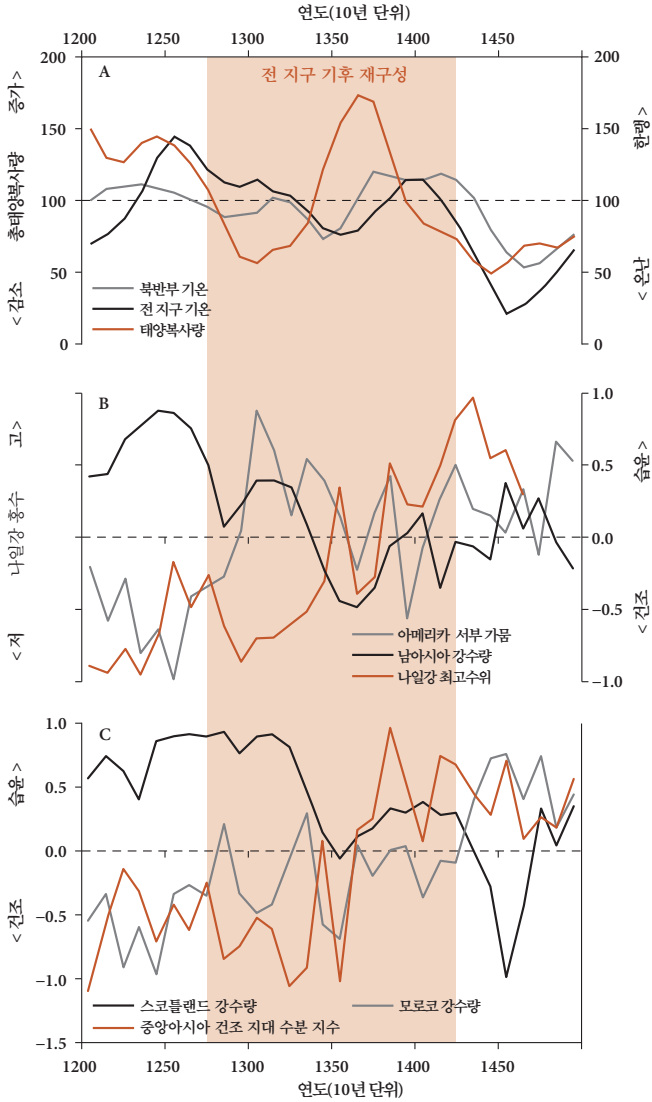


그림 1.1 | (A) 태양복사량, 전 지구 기온 및 북반구 기온 지수, 1200-1500년. (B) 남북 아메리카의 서부와 남아시아의 강수량 및 나일강 최고 수위 지수, 1200-1500년. (C) 스코틀랜드와 모로코의 강수량 및 중아시아 건조 지대의 수분 지수, 1200-1500년.

출처: (A) Delaygue and Bard(2010b); Vieira and others(2011); Loehle and McCulloch(2008); Mann and others(2008). 100=1250-1450년 평균. (B) Cook and others(2004c); Rein and others(2004); Rad and others(1999); Berkelhammer and others(2010b); Zhang and others(2008); Wang and others(2006); Popper(1951), 221-3. (C) Proctor and others(2002b); Esper and others(2009); Chen and others(2012).



대항해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주경철 저

대륙 문명의 관점, 서구중심주의적 해석에서 탈피해 근대 세계사 탄생 과정을 짚어낸 역작. 오늘날 세계체제의 기본 틀이 형성된 15-18세기, 여러 문명이 상호 소통한 해양을 무대로 지구사를 그린다.

- 2008년 KBS 'TV책을 말하다' <책문화대상>
-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CEO 필독서 20선



빠로 읽는 과거사회: 옛사람 뼈를 이용한 과거 생활상 복원 방법

박순영 편저

국내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옛사람 뼈 자료로 복원한 한반도 거주민의 생활사. 기존 연구들을 총정리하는 동시에 세계 학계의 동향과 분석 방법을 검토하여 후속 연구에 지침을 제시한다.



기독교인이 본 십자군, 무슬림이 본 십자군

김능우, 박용진 편역

아랍 자료 전문가와 유럽 자료 전문가가 함께 작업한 '사료선집'. 유럽인의 관점과 현대인의 해석에서 벗어나, 당대인의 눈을 통해 십자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안한다.

14세기에 구세계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던 역사적 추세의 궤도로부터 이탈한 일련의 근본적이며 급격한 변화들이 발생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던 교류 네트워크가 파괴되었고, 라틴 기독교 세계는 15세기 말 대항해가 시작될 때까지 벗어날 수 없던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하였다.

브루스 캠벨은 이 '대전환' 시기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상업 침체,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흑사병의 발발이 인류 운명의 반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국민소득 추정치, 고기후 복원자료, 페스트 희생자의 치아에서 추출한 DNA의 유전자 분석 등이 포함된 새로운 역사적, 고생태학적, 생물학적 증거들이 동원되어 중세 말 서유럽 상업경제의 생성, 붕괴, 재편을 다각도로 비춘다.

*** 브루스 캠벨의 중세 유럽에 대한 통찰력 있는 지식이 현대 과학의 성과와 결합하여 기후 불안정에 직면한 사회들이 어떻게 기근과 페스트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탁월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_마틴 돈턴,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 대담한 학제적 연구의 성과다... 캠벨의 책은 학자들, 과학자들, 그들의 후학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의 문제의식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_리처드 C. 호프만, 토론토 요크대학교 교수



ISBN 978-89-521-3681-7 93920

값 55,000원